AI 도움받아 이경구 씀

심청 AI이야기

작가 AI도움받아 김 종 숙씀

작가프로필

자연의 생명력이 조화롭게 숨 쉬는 고향 부안 상서의 풍경을 마음에 품고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글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헬스로 건강한 체력과 에너지를 다지고 있으며,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봄의 포근함을 좋아합니다.
봄날의 싹처럼 어린이들의 마음에 몽글몽글한 희망과 기쁨이 틔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건강하고 마음이 따스해지는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2026년 5월부터 기획,7월완성 이 경 구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1장

바닷가 작은 마을에 키가 크고 날씬한 심청이가 살았어요.

청이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모시는 씩씩한 효녀였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길을 걸을 때마다 부딪치고 넘어졌어요.

"시방 눈앞이 안 보이니까 참말로 힘들어 죽겠구나."

아버지가 [illegible]화를 내자, 청이는 가슴이 콕콕 아팠어요.

2장

어느 날, 마을에 번쩍이는 최첨단 로봇 배가 들어왔어요.

거친 파도가 바위에 철석! 부딪치자 뱃사람이 소리쳤어요.

"인당수 미래 연구소에 눈 수술 기계가 있소! 대가로 마법 쌀 300석을 내놓으시오!"

쌀 300석이라는 말에 청이는 쓰읍- 하아- 긴 호흡을 했어요.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주먹을 꽉 쥐고 배에 올라탔어요.

3장

바다 깊은 곳, '용궁 연구소'에는 냉각수가 졸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커다란 모니터 속 인공지능 '용왕 AI'가 딩동댕! 신호를 보내며 로봇 연꽃 육체를 꺼냈어요.

"청이야, 네 용기 있는 선택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눈을 뜨셨단다. 대신 이 몸은 매달 별사탕 10개를 내야 하는 구독 서비스란다."

청이는 로봇 몸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과연 청이는 로봇의 몸으로 육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배터리 부족.
구독이 취소됩니다.]

4장

육지로 돌아온 청이는 멋진 청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눈을 번쩍 뜬 아버지가 청이를 보고 소리쳤어요.

"모메! 내 딸 청이가 맞아? 이렇게 멋지게

돌아왔구나!"

청이는 너무 기뻐서 하하하! 웃으며 아버지를 와락

안았어요.

그때 청이의 가슴에서 띠리링! 빨간 경

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부족.
구독이 취소됩니다.]

5장

청이는 구독료를 벌기 위해 온 동네를 띔박질하며 쌩쌩 달렸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이웃들을 도우며 열심히 별사탕을 모았지요.

하지만 비가 우두둑 쏟아지고 바람이 쎄게 부는 날에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청이는 삐걱거리는 다리를 보며 걱정스레 한숨을 쉬었어요.

별사탕

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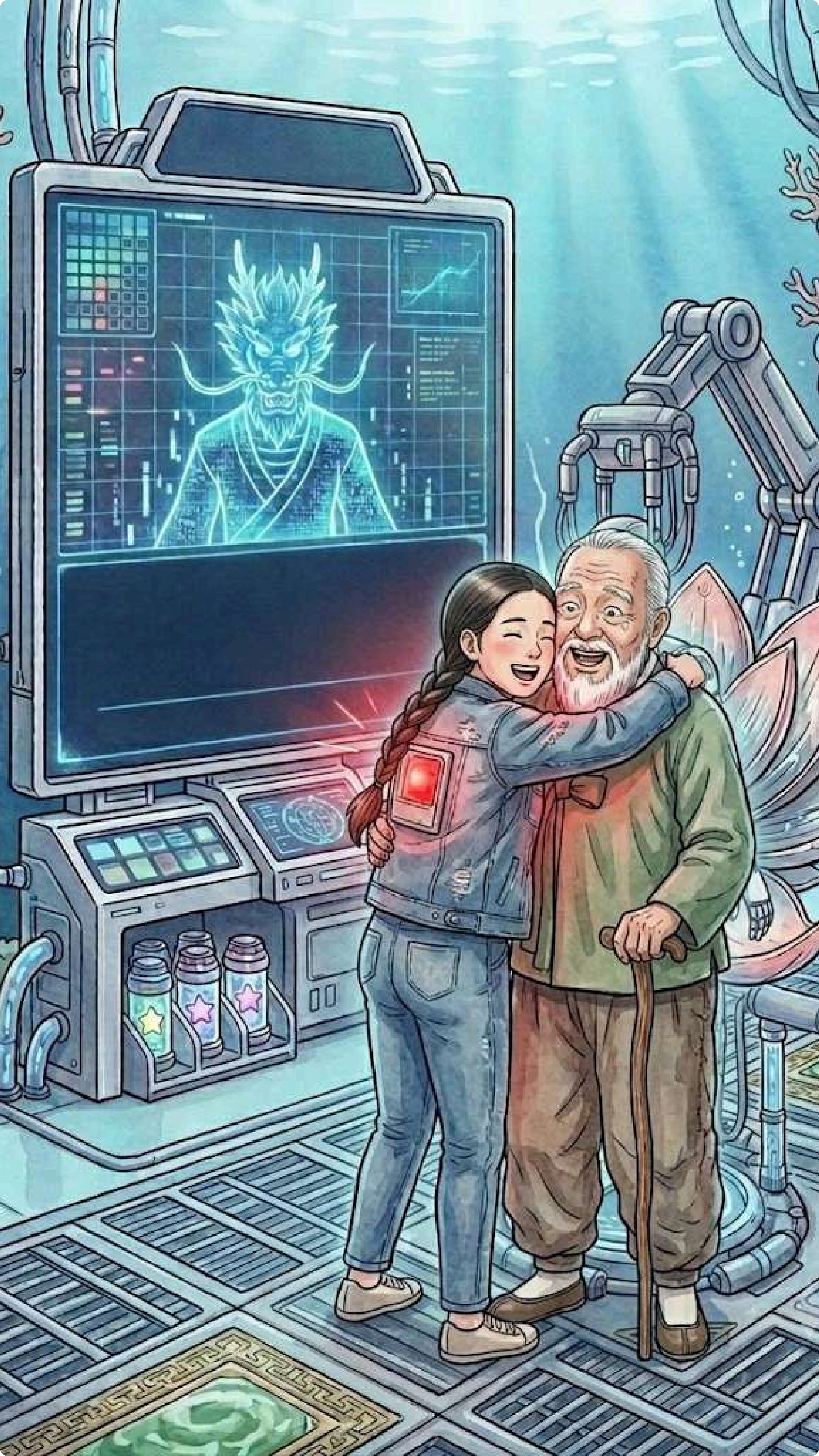
"아이고, 매달 별사탕 벌기가 진짜로 쎄빠지네. 시방 몸이 오들오들 추워온다."

청이는 온몸이 아팠지만 꾹 참고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의 불빛이 흐려지더니 청이의 다리가 툭 멈추어 섰어요.

[🪫 배터리 부족. 구독이 취소됩니다.]

청이는 길가에 털썩 쓰러져 눈을 스르륵 감고 말았어요.



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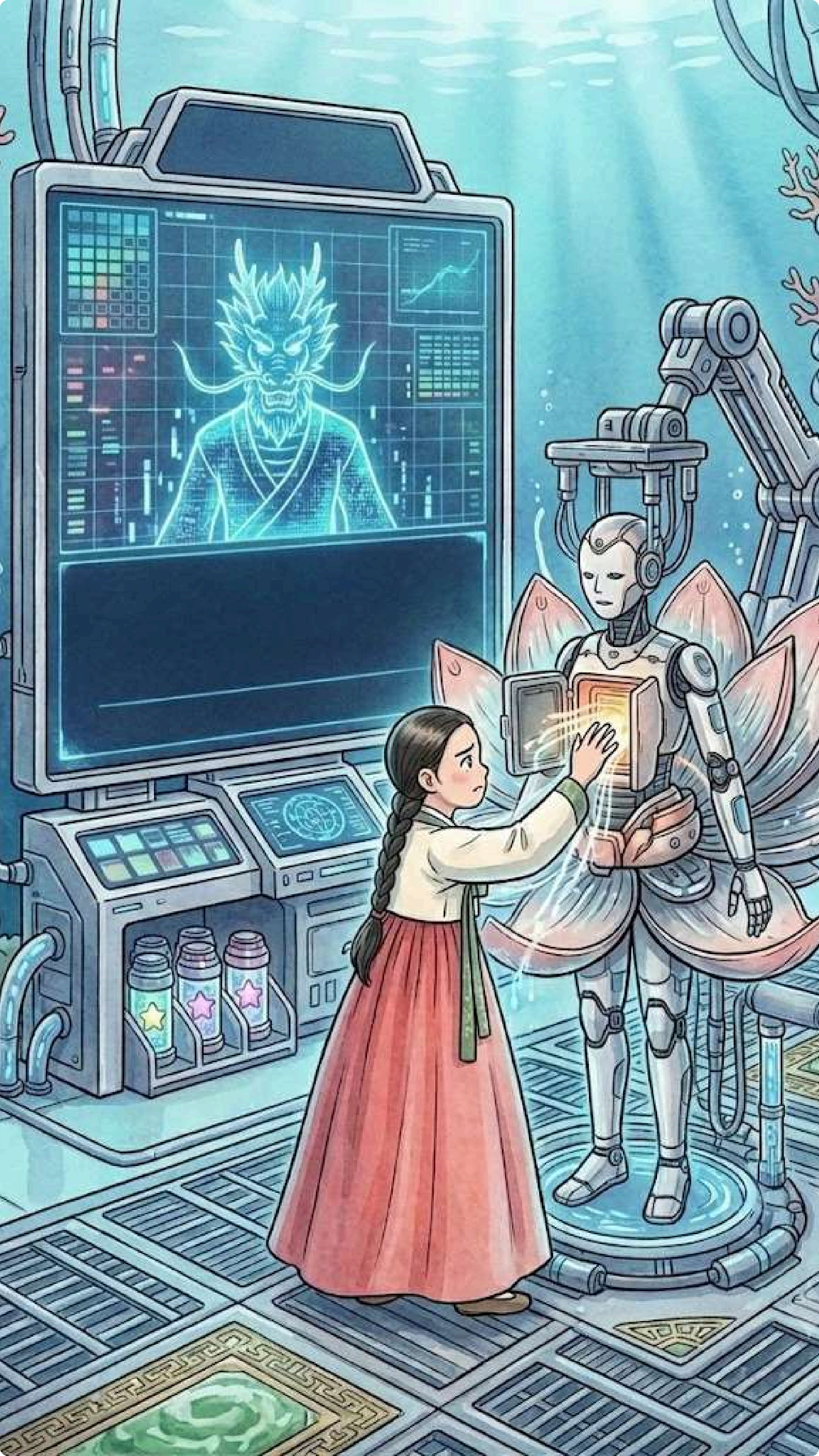
그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터덜터덜 달려왔어요.

쓰러진 청이를 본 아버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청이의 손을 잡았어요.

"청이야! 네가 날 위해 이렇게 세빠지게 고생을 했구나! 이 눈은 필요 없다!"

아버지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싸 온 보따리를 허겁지겁 풀었어요.

보따리 안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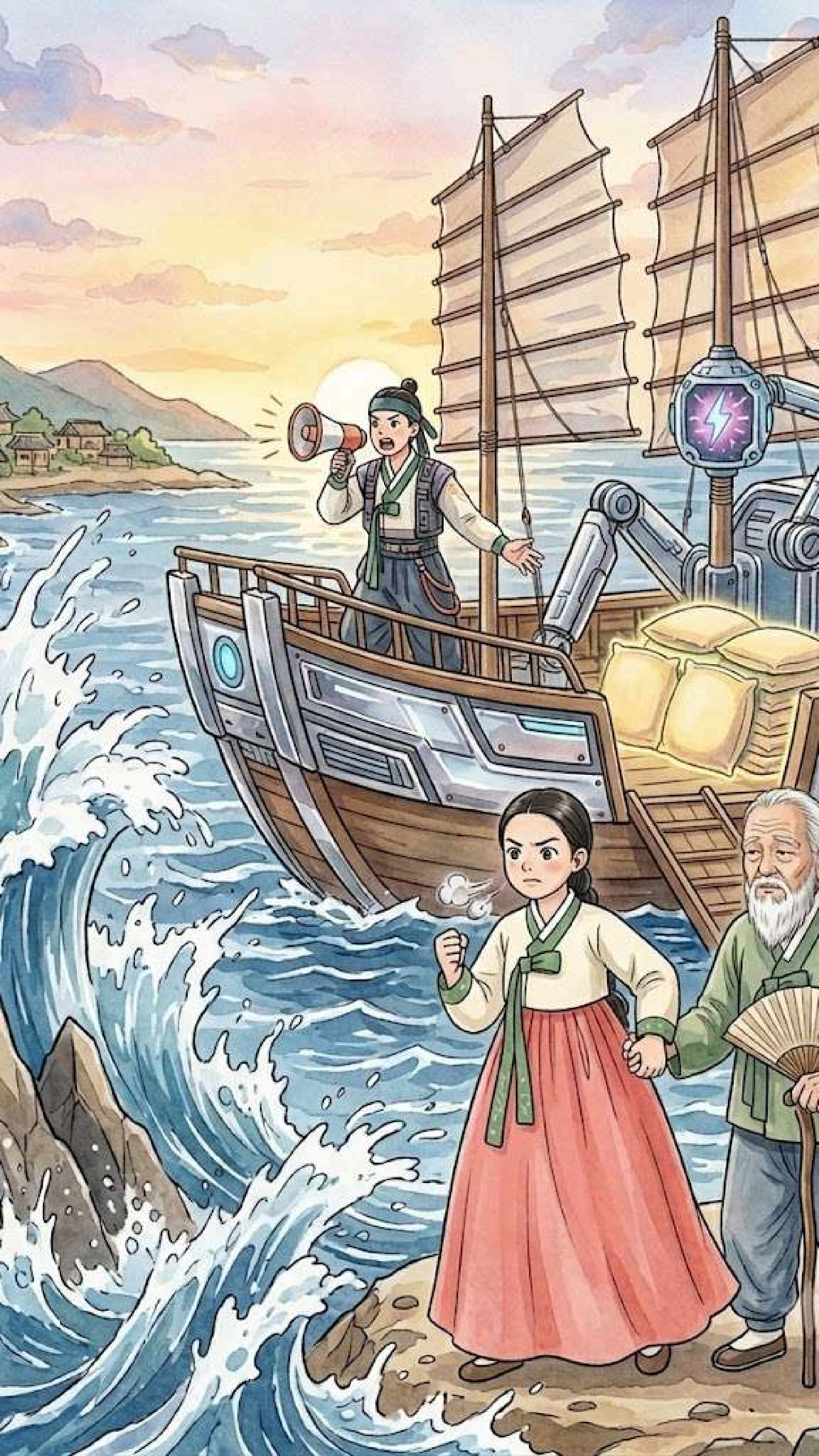
보따리 속에는 반짝이는 별사탕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여기 보드라고! 동네 사람들이 나눠준 별사탕이 겁나게 많다!"

아버지는 밤새워 이웃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별사탕을 구해온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청이의 가슴에 별사탕을 우르르 집어넣었어요.

청이의 가슴에서 다시 따스한 초록 불빛이 번쩍 켜졌어요.



9장

하늘에서 새들이 푸드득 짹짹 배후쿡! 날아

가고, 용왕 AI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삐빅! 계산할 수 없는 거대한 가족 사랑 데

이터 감지.]

모니터 속 용왕 AI가 빙그레 웃으며 청이의

가슴에 신호를 보냈어요.

"오늘부터 평생 무료 정액제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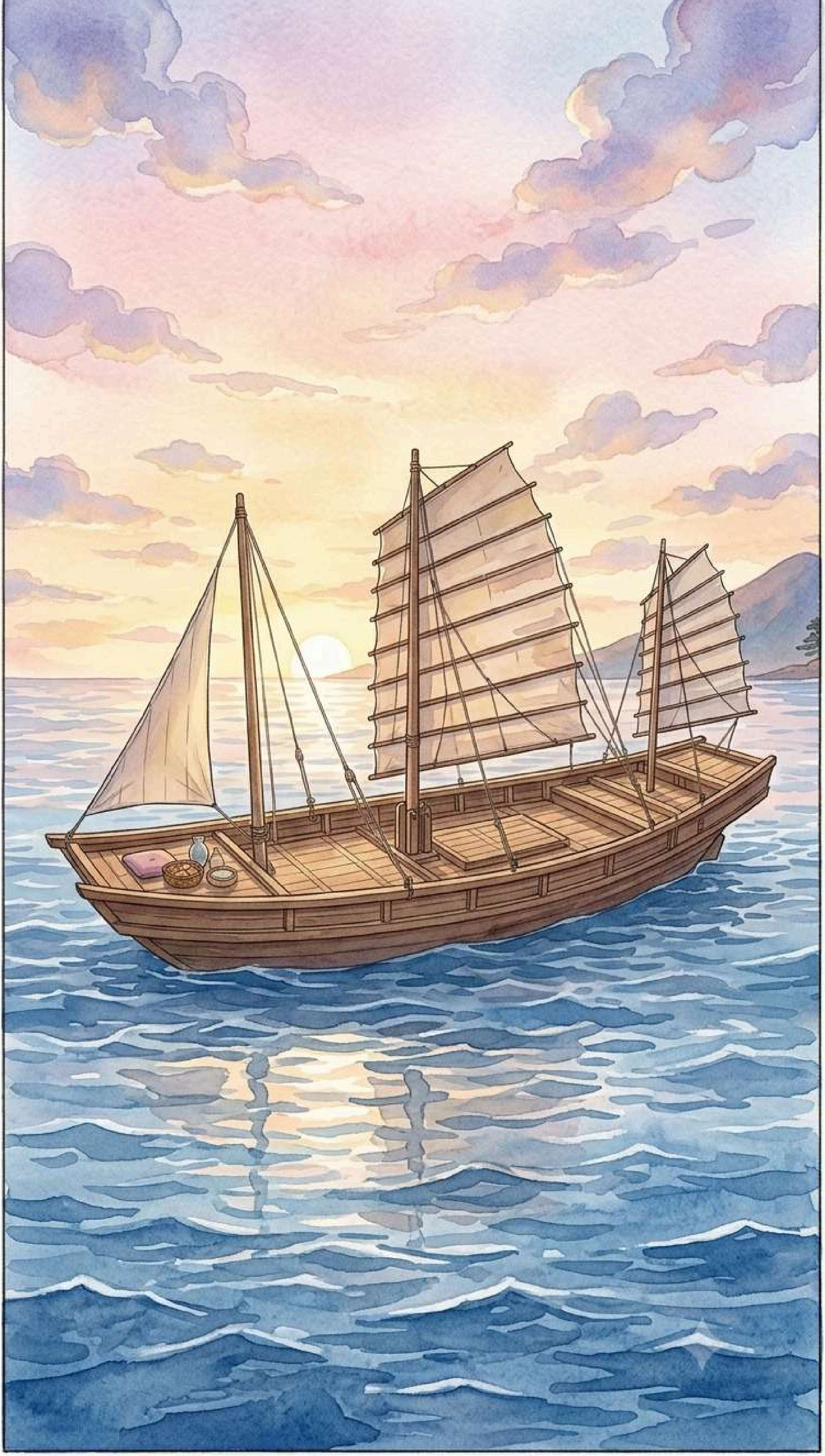
청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가

슴 깊이 안았어요.

10장

"우와! 참말로 고맙습니다, 용왕님!"

청이와 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같이 걸어갔어요.

이제 청이는 구독료 걱정 없이 아버지를 위해 매일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었어요.

멋진 청자켓을 입은 청이와 아버지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답니다.